

제목: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 (2)

말씀: 히브리서 4장 12-13절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쉽게 그 말씀이 지금의 나와 얼마만큼 거리가 가까운 말씀인지 잘 알지 못하고 대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 하나님 말씀은 믿는 성도들에게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기적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할 이유는 오늘도 살아서 주시는 살아있는 메시지가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 1) 하나님께 _____하도록 만들어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 2) 감동을 주셔서 _____로 회복하게 하십니다.
- 3) 헌신하도록 도우셔서 온전히 _____ 받게 하십니다.

지난 주 헌금	
주일 헌금	
생명의 삶	
합계	

새로운 교회와 함께 하는 선교지	
프랑스	백남일 김유경 선교사 (북 아프리카 사역)
터어키	SILKWAVE 실크 웨이브 선교회 (이슬람권 사역)
한인 2세권 교회	Deep Roots Church 깊은 뿌리교회 (New Jersey, USA)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교회는 인생의 슬픔 끝 그리고
 행복이 시작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인생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오레곤 새로운 교회로 초청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지금 기경하고 여호와를 찾으라" (호세아 10장 12절)
 "Break up your unplowed ground and seek the Lord" (Hosea 10:12)



주일 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오후 12시 30분
12: 30 PM

인도: 김성민 목사
President: Rev. Jason Kim

-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Call to Worship President
- * 찬양 다같이
Praise All Together
- 예배를 위한 합심기도 다같이
Prayer All Together
- 성경말씀 히브리서 4장 12-13절 설교자
Scripture Reading Hebrews 4: 12-13 신약 356 페이지 President
- 말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2) 김성민 목사
Message Love for God's Word Rev. Kim
- 찬양 200(235)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다같이
Praise Sing Them Over Again to Me All Together
- 헌금/기도 다같이
Offering and Prayer All Together
- 광고/환영 인도자
Announcement President
- * 찬양/헌신기도 은혜로다 다같이
Praise and Prayer It is God's Grace All Together
- * 축도 설교자
Benediction Rev. Kim

오레곤 새로운교회 New Church of Oregon

(예배 장소) 3228 SW Sunset Blvd Portland OR 97239 (503)332-1941
 (St. Andrew's Presbyterian Church)
 www.newchurchoregon.com newchurchoregon@gmail.com
 담임: 김성민 목사 (Rev. Jason Kim, Senior Pastor)

담임목사 컬럼 (겨울 끝에 동백꽃)

올해는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려서 뒤뜰에 나갈 시간이 없었다. 그런데 늘 흐린 가운데 어두운 줄만 알았던 뒤뜰이 어느 날 갑자기 환해졌다. 무엇인가? 유심히 살펴보니 동백꽃이 피고 있었다. 이전에 살던 집에도 동백꽃이 있어서 금방 알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더욱 새로웠던 이유는 꽃이 너무 일찍 피어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봄이 올 것 같지 않았던 날씨였지만 꽃은 내가 피부로 느끼는 것과 달랐던 것이다.

동백꽃은 겨울 끝에 피는 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겨울의 꽃이라고 알고 있는 동백나무는 겨울에만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장소에 따라서 늦가을에서 3-4월까지 피는 꽃이다. 그런 동백꽃은 사람들에게 겸손한 마음과 침착함 그리고 인내의 상징이다. 그런 동백꽃이 올해는 일찍 꽃을 피우고 있었고 한 달 내내 햇빛을 볼 수 없던 나에게 참으로 환한 새로운 세상을 보는 듯했다.

오늘 그 동백꽃을 보면서 믿음의 생활을 생각해 본다. 요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기도 하다. 많은 생각들과 결정들이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성도를 위축되게 만드는 것 같다. 하지만 세상은 늘 그래왔다. 하나님을 알지 않기도 작정한 세상은 힘을 다하여 교회와 성도들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믿음의 성도들은 동백꽃과 같은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동백꽃이 겸손과 인내를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그리고 아무리 겨울이 혹독해도 자신의 때를 알아 꽃을 내는 것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 때에 어두운 세상은 새로운 맛을 볼 것이다. 세상의 색깔과 다른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 겸손과 인내의 사랑이신 예수님을 보여야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다. 우리는 동백나무가 때를 따라서 꽃을 내듯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한다. 그때가 혹독한 겨울과 같은 온도의 때라고 하여도 성도를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살기 때문이다. 세상의 생각과 계획으로는 앞뒤가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는 정확한 때인 것 같이 믿음의 꽃을 내야 한다. 그것이 동백꽃과 같은 성도의 믿음이다.

하나님은 사도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의 꽃을 피우라고 하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 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디모데후서 4장 7-8절)

그 믿음의 꽃을 내야 하는 때는 지금이다. 지금 나의 처한 상황에서 믿음의 꽃을 내야한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기대하며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 삶은 세상에서 아름다운 꽃과 같이 드러날 것이다. 그것이 증인의 삶이고 세계 선교다.

요즘 같이 어두운 때에 사랑과 믿음의 꽃을 피우려고 몸부림치며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을 높이는 굽힐 줄 모르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한다.

교회소식

1. 환영합니다

오늘 오레곤 새로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오늘은 China Jade에서 자짱면을 먹으며 성도의 교제가 있겠습니다. 예배가 마친 후 곧바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말고 같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Lin's China Jade)

4050 SW Cedar Hills Blvd, Beaverton, OR 97005

2. 이번 주 기도제목

- 1)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 2)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의 일을 잘 감당하고 새로운 성도들 잘 정착 하도록
- 3) 새로이 사역 하실 전도사님들을 위하여 (중고등부, 아동부, 영어회중)
- 4) 건강의 회복이 필요한 분들을 위하여 (독감)
- 5) 열심히 선교하며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 6) 전 세계 폐렴으로 고생하는 나라들의 회복을 위하여
- 7) St. Andrew's Presbyterian Church의 부흥을 위하여

프랑스: 백남일, 김유경 선교사님 부부의 사역과 건강을 위하여

터어키: 터어키 교회들의 위험한 중에 부흥을 위하여

깊은 뿌리교회: 목사님 부부의 영적인 건강과 성령 충만함

3. 새벽 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6시에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기도하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4. 생명의 삶

생명의 삶 2월호가 도착했습니다. 한 권씩 구입하셔서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

5. 2월 행사

사순절 시작 2월 26일(수)

6. 교회 웹 사이트 주소와 이메일 주소

웹 페이지 주소: www.newchurchoregon.com

이메일 주소: newchurchoregon@gmail.com

7. 교역자 동정

김성정 전도사(Faith Kim) 사역시작 2019년 2월 9일(주)

유치부, 유아부 (아동부)